

업계동정

KO 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급증 월평균 6개 조합 신설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이 크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총 47개 조합으로, 91년의 31개에서 92년에는 64개로 2배 이상 늘어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약 6개 조합이 새로 신설되는 등 협동조합 설립이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 중소도·소매업체들이 조합을 설립, 자구책을 모색하기 위한 유통관련조합과 지역별 사업조합이 큰폭으로 증가하는데다 협동조합 설립요건이 업종분류상의 세세분류로 전문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연합회가 한국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연합회 등 2개, 전국 조합이 대한탄산협동조합 등 6개, 지방조합이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 등 19개에 이르고 있다.

반면 양주생지가공사업협동조합, 영등포동부철강판매업조합, 영등포서부철강판매업조합, 제주도골판지판매조합 등 4개 협동조합이 해산됐다.

백 화점 과대포장 점검 환경처, 스티로폼 완충재 사용여부 등 점검

환경처는 지난 9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시중 주요백화점을 대상으로 과대 포장을 금지한 상품포장에 관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현장점검 했다.

2인 1조 3개반으로 구성된 환경처 점검반은 ▲상품별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여부 ▲사용이 금지된 PVC코팅 및 라미네이션 사용여부 ▲스티로폼 완충재 사용여부 ▲용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리필제품의 판매코너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는 9월말쯤 발표 예정이라고.

식 품포장재 되돌려주기 운동 주부클럽연합회, (주)미원 공동주최로

각종 식품포장재 되돌려주기 운동이 지난 9월 24일 남대문 새로나 백화점과 여의도 백화점 두곳에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주)미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식품포장재 되돌려주기운동」은 각종 조미료와 즉석식품 등의 포장용기가 엄청난 쓰레기로 마구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일반인들에게 상기시켜 일상생활속에서 깨끗한 환경 만들기가 시작되도록 한다는 게 행사개최목적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성과가 그리 크지는 않은 편이라고.

이 행사에서 미원은 자사 전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 10가지씩을 모아오

대한 주부클럽연합회와 미원이 공동주최한 식품포장재 되돌려주기 운동 현장



면2백50g짜리 맛소금과 1백 20g짜리 감치미로 즉석에서 교환해주었다. 또 2백ml 우유팩 1백개는 50m짜리 재생두루마리 화장지와 교환해주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이번이 5번째다.

김 포환경단지 대폭 축소 자동차공해연구소, 환경기술연구원 등 제외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건설키로 했던 종합환경연구단지가 당초 계획에 비해 3분의 1 규모로 크게 축소돼 내년에 착공된다.

환경처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줄이고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연구시설들을 한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종합환경연구단지 건설과 관련해 최근 예산 당국과의 협의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등의 우려로 총투자 규모가 당초 1천4백15억4천6백만원에서 5백32억5천4백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연구단지규모가 이처럼 대폭 축소됨에 따라 당초 입주키로 계획했던 자동차공해연구소와 주행시험장, 환경기술연구원 등의 시설이 입주대상에서 빠졌다.

산 업디자인 포장전문회사 신고요건 완화 매출액 5천만원 이상 개인도 가능

산업디자인 포장전문회사를 육성키 위해 상공자원부가 추진중인 전문회사 신고제도의 신고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전문회사 신고요건 중 법인

으로 제한하던 것을 개인까지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을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해 전문회사 신고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도는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기존 신고요건을 갖춘 국내 디자인 회사들이 적어 지난 9월 16일 현재 한국 프리즘 등 8개업체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도는 정부가 5년 동안 전문 디자인회사를 1백개 이상 육성, 자체 디자이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전문회사로 신고되면 공업발전기금, 공업기반기술 개발기금 등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며, 중소기업체와 연계한 디자인 개발시 우선적으로 지명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재 활용업체에 공단 우선입주권 환경처,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시행키로

앞으로 고철 및 폐지, 폐유리 등 폐자원을 활용하는 재활용업체에 공단 우선입주권이 주어진다. 또 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품목이 현행 7종목 외에 비철금속류 동식물 잔재류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늘리고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9월 중에 건설부, 재무부, 보사부, 상공자원부 등 관계처 합동으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김영삼 대통령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사업확대 실시방안을 강구하자.”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안은 정부가 개발

하거나 이미 개발한 공단 및 지방의 농공단지에 재활용업체를 우선 입주시키는 등 폐자원활용업체의 부지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각급 초, 중, 고교에 시험용지 및 학교비품을 사들일 때 재활용품의 우선 사용을 권장키로 한 것.

이와 함께 현재 고철 및 폐지, 캔, 플라스틱, 합성고무, 폐건전지, 폐유리 등 7종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을 대폭 확대, 재활용 가치가 높은 비철금속류 및 동식물 잔재물 등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재활용 제품의 수요시장을 확충하기 위해 ▲재활용 제품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품목으로 확대(지명 경쟁입찰 대상에 포함) ▲재활용 제품의 KS표시 대상품목 확대 ▲공공장소, 상가, 백화점 등에 재활용 제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재생 재활용 감량화를 고려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을 만들 때 폐자원의 투입의무 비율을 설정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른 사업자의 폐자원 공동회수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처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국내 제품의 해외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 자원절약방안을 강구하되 「폐자원의 사용률 준수」 품목확대 등에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항 균방취 PP 스펀본드 개발 제일합섬, '게스본 그란' 양산체제 돌입

제일합섬(대표 박홍기)에서는 항

균방취 PP 스펀본드 '제스본 그린'을 개발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제일합섬 기술연구소와 경산공장이 공동으로 1년에 걸쳐 개발 완료한 '제스본 그린'은 균일하고 미세한 입자형상을 갖고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특수화합물(항균제)을 스펀본드 제조시 PP칩과 혼합방사하여 폴리머에 혼입시켜 내세탁성이 우수하고 가공후에도 물성저하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

특히 포함된 항균금속이온이 촉매작용을 통해 공기중 산소를 이온활성화시켜 살균작용함으로써 섬유제품에 서

식해 악취와 불쾌감을 주는 여러 종류의 유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일합섬은 '제스본 그린'의 우수한 특성을 이용해 세탁 커버, 테이블보, 슈트 케이스 등 생활재 분야와 정수기용 필터 수출용 포장재 등 산업용 분야, 수출용 가운 등 의약분야로의 다각적인 용도 전개를 해나갈 방침이다.

석 유화학협회, 임시총회 가져 이정환 회장 취임, 서통유화 탈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지난 9월

20일 신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이정환씨가 회장직을 유임했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이 교체되기도 했다.

또한 회원사였던 서통석유화학은 공장신축 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회원사에서 탈퇴했다.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13개 건설 자치구별로 2005년까지 완공

서울 13개 지역에 오는 2005년까지 하루 평균 총 1만6천9백50t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게

EPS 규제에 따른 업계 반응/가전제품사들 감량화 협의 가져

EPS 사용 규제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당황함과 반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이 중심이 된 가전제품사들은 나름대로 감량화협의를 가졌으나, 냉장포장의 대체재를 찾지 못한 백화점협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EPS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자로 적용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을 보면 '제조자들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9조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제1항, 가전제품(에어컨디셔너·컴퓨터·진공청소기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정용기구 제조업 또는 방충수신기 및 영상·음향기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용적이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

수지 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전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의 감량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완충재를 감량화하여야 한다. 제3항, 제조자들이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포장재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9조 2항의 감량화 기간은 1996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있다.

이에따라 스티로폼 포장재 생산업체들은 생존권 위협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백화점협회측은 고기냉동 식품의 포장은 현재 스티로폼 이외의 대체재를 찾기가 어렵다며 종전대로 EPS를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96년 말까지로 정해진 가전제품의 감량화에 대해 삼성, 금성, 대우 등 가전제품 업계에서는 지난 9월 10일 환경처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빠른시일내에 가전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EPS의 사용 정도를 조사해 환경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가전제품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감량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금성사는 사내에 환경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6개의 전문팀 중 포장팀에서는 완충재 사용량 중 30% 이상의 감량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93년까지 5%이상 94년 10%이상, 95년 15% 이상을 감량화할 계획이라고.

감량방법도 ▲완충재 체적설계 개선, ▲제품의 구조 및 강도개선 ▲फल지 및 지관 등 재활용 재질과 혼용적용 개선 ▲대체재로 개발 및 포장재 회수 재사용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카스테레오, 헤어드라이어 등 소형 제품의 경우는 EPS에서 골판지로 전량 대체 하였으며 기타의 신제품의 경우도 EPS와 골판지 지관등을 혼용 사용하여 감량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금성사 측은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나 대우전자 등은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대체재 개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EPS 규제 및 감량화에 따라 개발의 활기를 보이고 있는 PE, PP, PU를 원료로 완충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이 국내 최초로 다이옥산을 개발, 올해말부터 본격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혐오시설과 관련된 지역이거주의 행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치구별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13개 시설을 건설키로 했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이미 착공에 들어간 목동, 상계동 2곳은 오는 96년까지, 내년 착공예정인 마포, 강남은 97년, 95년 착공예정인 강동, 도봉 2곳은 오는 98년까지 완공키로 하고 나머지 구로, 은평, 관악, 서초, 중랑, 동대문, 강서 등 7개소는 99년 이후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마포에 들어설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하루평균 2천7백t 의 시설용량을 갖춰 마포, 중구, 용산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이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하루 평균 1천8백t 규모로 강남 송파지역을 맡게 된다.

또 강동과 도봉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내년중 기본설계용역을 거쳐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를 마친뒤 하루평균 1천9백t과 1천3백t 규모로 각각 설계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건설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삼 성종합화학, 다이옥산 개발 국내수요 전망 수입대체 기대

삼성종합화학(대표 황선두)이 최근 국내 최초로 대산단지내 EG(에틸렌글리콜) 공장에서 공정중 발생하는 폐기물(폐 Crude PEG)과 자동차의 폐부동액을 활용해 다이옥산을 생산하는 신기술을 개발, 올해말부터 연산 1천톤 규모로 본격 제품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이옥산은 접착제, 도료, 농약 등의 합성, 반응기제, 반도체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 그동안 국내수요 전망(약 1천톤/년)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일본 등 해외 선진 화학사들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 판매해 오던 이 제품의 생산에 삼성종합화학이 성공함으로써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은 물론, 앞으로 연간 2백만불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종합화학이 생산한 다이옥산에 대한 국내 시장테스트 결과, 기존의 주요 공급업체인 일본의 동방화학과 大阪유기화학에서 순수 디에틸렌글리콜을 원료로 생산한 제품보다 순도와 수분함량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성, 정제, 폐부동액 활용 등 3건의 특허를 출원한 이 기술에 대해 향후 해외로도 수출할 계획이라고.

E PS재활용협회, 폐발포스티렌 회수에 앞장 회수차 2대 정기 운영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폐발포스티렌 회수 및 재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협회는 날로 증가하는 폐발포스티렌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중순부터 우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지역 5곳을 선정하여 회수차 2대(2.5t)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페스티로폴 회수를 실시한다. 회수된 페스티로폴은 재활용공장 건설전이라도 용산전자상가내의 원효산업과 협조하여 월 10t 트럭 30대분을 재활용한다.

페스티로폴은 회수만 하면 바로 재생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부피가 크고 눈에 두드러져 환경오염 물질로 잘못 알려져 있다.

시범지역

▲용산구 서계동 적환장, 용산5가 적환장, 이촌지구 아파트 단지 3곳

▲한강주변 페스티로폴

▲세운상가 및 대림상가내 가전제품 스티로폴 포장재

▲과천시 전지역

▲가락동 농산물 시장의 어상자

중심의 장치동 적환장

또한 송파구청 장치동 적환장에는 스티로폴 감용기를 무상지원하여 어상자를 중심으로 페스티로폴을 1차 감용처리하여 재생수지화 한다.

신 기술 PVC 연구회 설립
력키, 15 PVC 가공업체와 공동으로

력키가 15개 PVC 가공업체와 공동으로 「신기술 PVC 연구회」를 설립, 지난 9월 16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PVC관 제조업체들의 과다 설비투자로 인한 공급과잉, 매출감소 등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원료 공급업체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업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신기술 PVC 연구회는 고강도 상수도관 개발을 1차 연구 프로젝트로 선정,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력키는 중앙연구소 인력 및 시험기자재를 공동활용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 내 최초로 통기성 필름 생산
화승실업, 투습 및 통풍효과 우수

BOPP필름 생산 전문회사인 (주) 화승실업(대표 서진석)이 투습 및 통풍효과가 뛰어난 통기성 필름을 개발,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화승실업은 그동안 이 통기성 필름 개발을 위해 일본 스미토모화학과의 기술제휴를 맺고 1백억원을 투자, 충남 아산공장에 연 2천4백만 규모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지난 9월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한 것. 이 통기성 필름은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생산되어 왔다.

통기성 필름은 일반 방수필름과 달리 필름에 미세한 공기구멍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 물방울의 통과를 막고 체내의 땀과 습기 등은 발산시켜 신선도를 높여주는 기능성 필름이다. 통기성필름의 구멍 크기는 0.05~50μ 으로 물방울의 크기(100μ)보다는 작고 기체·증기의 크기(0.01~0.0001μ)보다는 커서 방수와 동시에 투습 및 통풍이 가능하다.

통기성 필름 용도로는 기저귀가 대표적이다. 뛰어난 투습 및 통풍성으로 피부의 진무를 방지할 수 있기

매우 밝을 것으로 보인다.

이 통기성 필름은 PE계 수지에 안정제, 필러, 첨가제 등을 혼합, 컴파운딩해 필름으로 가공생산된다.

한 국제지, 임산·카툰팩 사업부 독립
별도 법인화 추진

한국제지(대표 지동범)가 사내 임산(林産)사업부와 카툰팩사업부를 각각 독립시켜 별도 법인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제지는 경주, 청송, 여주 등에 산재한 1천 5백만평 규모의 조림지와 반월공단의 카툰팩공장은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형식으로 양도하게 된다.

한국제지가 두개의 사업부를 별도 법인화하는 것은 최근 인쇄용지 시장의 불황으로 경영적자 규모가 커져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내린 조치다. 특히 우유팩 용지를 생산하는 카툰팩공장은 최근 3년동안



▲ 신기술 PVC 연구회 창립 총회

때문에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국내 유아용품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승실업은 현재 일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입 기저귀 커버에서 연 55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회용 기저귀 외에 골프복, 우비, 방제복, 건조제싸개용, 수술복 등 통풍 및 투습을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도개발에 따라서는 시장전망이



▲ 화승실업이 국내 처음으로 생산에 나선 통기성 필름

매출규모가 정체됐을 뿐만 아니라 잦은 노사갈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돼왔다.

L DPE가격 폭락세 지속
업계 무리한 신·증설 때문

성형제품, 농업용 필름, 파이프 등의 주원료로 쓰이는 LDPE가격의 폭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표적 합성수지인 LDPE의 내수 공급가격이 지난 90년에는 t당 73만원선이었으나 최근에는 변동비 수준도 안되는 4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유화업계가 무리한 시설확장으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림산업이 수직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이 분야에 신규 참여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LDPE 시장은 한양화학이 거의 독점체제를 유지해 오다 지난 90년 정부가 투자자유화 조치를 내린 후 럭키, 유공, 삼성종합화학, 현대 석유화학 등이 신·증설을 추진, 공급물량이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 지난해에는 국내 수요가 51만1천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한 반면 공급은 80만으로 29만이나 과잉됐고 올해에는 40여만의 공급초과 상태가 예상되고 있다.

석 유화학산업 수출상 첫흑자
상반기중 4천만달러의 흑자

석유화학산업이 수출증대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석유화학 수출입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유화제품실적은 총 13억7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중 수입 13억3천달러에 비해 4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올 연말까지 총수출은 28억달러, 수입은 26억5천달러가 예상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억5천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석유화학산업의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보인 것은, 국내 공급능력 증대로 수입이 계속 감소된 반면 수출은 엔고영향과 동남아시아에서의 수요증가로 신장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초 경량 신문용지 개발
한솔제지, 6% 경량화

한솔제지가 초경량 신문용지를 개발, 곧 시판한다.

한솔제지측은 지난 9월 16일 전주 공장 초지 6호기가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초경량 신문용지를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초경량 신문용지는 국내에서 가장 가벼운 46g/m²으로 기존의 48.8g/m² 짜리 제품보다 6% 경량화 됐다.

한솔제지는 국내 신문용지 사용

한국포장협회, 영업부서장 세미나 개최
‘한국기업의 21세기 전략’ 등 강연

한국포장협회(회장 한용교)는 이달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영업부서장 세미나를 연다.

경기침체와 최근의 금융실명제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활력소가 되는 한편 각사 영업 부서장의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기업의 21세기 전략’ 등을 강연한다.

이번 세미나의 구체적인 일정과 세미나 주제,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 일시: 1993년 10월 15일(금) 13:30~20:00
- 장소: 서울 팔레스호텔 코스모스룸(12층)
- 주제 및 강사
 - 13:30~14:00 회장인사
 - 14:00~15:50 한국기업의 21세기 전략
-이면우/서울대 공학 연구소장
 - 16:00~17:50 고객만족
-김영한/하이테크마케팅 연구소 소장
 - 18:00~18:50 연포장 영업의 문제점 및 협회운영 설명
-곽영구/본협회 부회장
 - 19:00~20:00 칵테일 파티
- 참가 접수 마감: 1993년 10월 12일 18:00
- 참가 신청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대한교원공제회관 505호
(사) 한국포장협회

전량을 초경량화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86만 그루의 나무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제품개발과 함께 폐지를 사용한 재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탈묵기술도 확보,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보호 효과까지 아울러 갖추게 됐다고.

문 류전문 컨설팅사 출범
미AT커니사와 업무 제휴

물류전문 컨설팅업체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법인으로 설립된 인텔로그물류컨설팅(대표 윤현덕)은 4명의 수석컨설턴트와 10여명의 외부전문가로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최근 업무를 시작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윤현덕씨는 대학에서 마케팅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산업공학박사인 장병만 씨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물류분야 책임전문위원을 역임한 박재원 씨 등이 수석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AT커니사와 업무제휴 계약도 맺었다.

인텔로그물류컨설팅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물류시스템을 구성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컨설팅은 종합컨설팅과 특정부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두부분으로 나뉜다. 종합컨설팅은 물류 전부분을 대상으로 중장기 물류전략과 종합물류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다. 반면 부문컨설팅은 물류거점의 입지, 재고관리, 하역설비, 수송 시스템, 물류정보시스템 등 각 분야별 전략과 시

스템을 설계한다.

이 회사는 물류에 대한 기업들의 큰 관심으로 벌써 6개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컨설팅을 의뢰한 업체 중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 골고루 섞여 있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 제약, 석유화학, 식품편의점, 정보시스템업체가 포함돼있다.

신 풍, 백판지 증설 가속화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 예상돼

신풍제지(주)(대표 정일홍)가 백판지생산설비를 잇달아 증설, 판지업체의 증설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평택공장에 연산 4만t 규모의 3호기 건설을 마무리중인 신풍제지는 연산 11만t 규모의 6호기를 잇달아 발주했다.

신풍제지는 또 6호기가 완공되는 95년 이후에도 이와같은 규모의 백판지 공장증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3호기와 6호기가 완성되면 신풍제지의 생산능력은 현재 18만3천t에서 33만t으로 대폭 늘어나 판지업계 경쟁사인 대한펄프, 동창제지, 세립제지 등을 단연 앞서게 된다.

신풍제지의 이같은 대규모 증설계획은 후발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96년으로 예상되는 한솔제지의 백판지 신규참여에 대비해 시장주도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증설경쟁에 따라 현재 생산량의 50%가량을 수출하는 백판지업계는 수출시장에서 국내업체간의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시장에서의 할인율경쟁도 심화돼 현재 10~15%인 할인율이

20%정도로 커지는 등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 트지 시장판도 변화
한솔, 흥원 등 후발주자 점유율 상승

종이공급 과잉현상에 따른 덩핑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트지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던 계성제지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한 하락곡선을 그고 있는 반면 후발업체인 한솔, 흥원제지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아트지 시장의 28%를 차지한 계성제지는 올 상반기에 24%로 푹 떨어졌으며 무림, 신호, 한국도소폭 뒷걸음질했다.

그러나 한솔은 11%에서 무려 18%로 뛰어올라 아트지 시장 참여 1년여만에 3위권 진입을 넘보게 됐고 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던 흥원도 7%로 증가했다.

이같은 아트지 시장의 지각변동에 대해 업계는, 밀어내기식 저가공급경쟁과 노후한 초지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품질경쟁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 철 해외의존 심화
재활용대책 시급

올들어 고철수입이 크게 늘고있고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철강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국내 철강업체들의 고철

수요가 총 7백6만4천t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9% 증가에 머문데 비해 고철 수입은 2백81만1천t으로 무려 45.8%나 늘어났다.

이에따라 고철의 해외수입 의존도도 작년의 34.9%에서 39.8%로 높아졌으며 특히 올들어서는 국제 고철시세가 강세를 지속, 고철수입증가로 인한 철강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입고철가격은 용해용 고철(HMS No.1)이 9월초 현재 t당 1백65달러선(CIF기준)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36%가량 올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t당 10만5천원 안팎에 머물던 국내고철값(용해용특급기준)도 14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고철수입이 이처럼 급속히 늘고있는 것은 국내고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체제가 부실하기 때문.

현재 국내의 고철수입가공단지는

지난 9월 7일 준공한 중원가공단지 하나뿐이며 그나마도 월가공능력이 1만5천~2만t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고철리사이클링체제 확립을 위해 시화공단등 다섯군데에 고철가공단지의 설립을 추진중이나 고철가공업이 도시형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 PS재활용협회, 폐부자 수거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참가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선일보에서 주관하는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캠페인에 참가하였다.

협회는 캠페인에 참가하여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최근 문제를 제기되고있는 폐부자를 수거하였다.

수거된 폐부자는 고성군청 협조 아래 회수, 협회 감용기로 1/50로 축

소하여 플라스틱 원료로 재사용된다.

이 행사에는 20명의 협회 인원과 고성군 연안 읍, 면 주민 1천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감용기 2대와 운반트럭 6대를 협회가 지원하였다.

캐 재활용사업 위기 정부, 업계 추진의지 부족

캐의 재활용을 위한 관련업계의 환경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캐제조업체의 모인인 제관조합을 중심으로 캐재활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던 캐재활용사업이 관련업계와 정부부처의 추진의지 부족속에 점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

제관업계는 지난해 9월 캐재활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모색을 위해 관련학과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재활용의 선행조건인 분리수거를 위해 올해초 캐재질표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재활용 사업의 핵심이 되는 재활용센터 건립은 아직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캐를 압축 가공할 이 센터는 당초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제관업계가 의욕을 가지고 막상 일을 벌여놓긴 했지만 당장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이끌고 나갈만한 뚜렷한 주체가 없다는 데 있다.

당초 제관업계는 자체 각출로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재활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이보다 많은 자금이

EPS 재활용 협회는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캠페인에 참가하여 폐부자 수거 작업을 벌였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립후에도 적자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제관업계도 이제는 센터건립 자체를 뜨거운 감자로 여기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또 캔재활용 사업에는 식음료업계 소재업계 등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상공자원부의 주장에 따라 범업계 차원의 재활용 협의회 구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협의회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데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아마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건립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부지확보문제이다. 당초 부지는 상공자원부와 환경처 등의 지원아래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부처에서도 센터에 압축기가 설치되면 제조업으로 분류돼 수도권내에는 설립될 수 없고 주민들이 지역내 입주를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지알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 8기 물류관리사 교육 실시 10.4~12.10 물류관리협의회서

한국물류관리협의회(대표 안태호)는 제8기 물류관리사 교육을 10월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국물류관리협의회 연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많은 물류관리사를 배출해내고 있는 이 과정은 국내 물류관련 실무자 및 교수들로 구성된 강사진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대응형의 물류관리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개론, 포장, 수송·하역보관 등으로 크게 나누고 있

으며 현장교육의 기회도 주어진다.

금년부터 연 3회 실시하고 있는 이 교육은 종료 후 교육생들에게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게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문의 : 359-4835)

해 태제과, 종합물류도매회사로 전환 일본 고쿠부사와 기술 제휴

해태제과(대표 박건배)가 종합물

류도매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태제과는 천안공장으로의 이전을 계기로 중부지역에 물류거점을 확보하면서 껌 등 건과류와 아이스크림 등의 생산시설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하고 제과를 포함한 공산품 도매물류를 담당하는 순수 유통업체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양평동 공장의 천안 이전이 마무리되는 95년까지 전국 주요도시에 물류거점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세미나 개최

이달 22일, '공장자동화' 주제 등

포장업체 기술인들의 모임인 한국포장기술인협회(회장 김선창·남경화학(주) 대표)가 이달 2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세미나를 연다.

근래 업계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 국내 기술 수준을 높이고 전망을 살피는 한편,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 기술인협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세미나를 가져왔다. 올해는 아홉번째다.

이번 세미나의 구체적인 일정과 세미나 주제,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 일시 : 1993년 10월 22일(금) 09:50~18:30
- 장소 : 서울 팔래스호텔 지하 궁전
- 주제 및 강사
 - 09:50~10:00 개회식
 - 10:00~12:00 「수성 그라비아잉크의 개발현황과 금후동향」
- 지구환경에 대한 인쇄잉크·코팅 기술 동향
- 香田 裕誌/CONVERTECH JAPAN 편집인
 - 13:00~16:30 「EVOH Resin의 특성 및 가공기술」
- 高橋 亨/일본 KURARAY CO., LTD 상품기획개발제2부장
 - 16:00~18:30 「연포장공장의 자동화」
- 李健宰/울촌화학(주) 이사
- 참가 접수 마감 : 1993년 10월 15일
- 참가 신청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대한교원공제회관 506호
한국포장기술인협회
전화 : 780-7472 전송 : 785-0889

는 5천평 규모의 대형 물류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태제과는 이미 일본 도매전문회사인 고쿠부사와 기술제휴로 TMC (Total Marketing Company)를 시협가동 중에 있다. 전상품의 5% 정도를 자체 물류시스템을 이용해 공급하고 있다고.

물류 류관리협의회, '93물류전국대회 개최
물류대상 시상도 같이 거행

'93물류전국대회가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한국물류관리협의회(회장 안태호) 주최로 열린다.

이 대회는 지난 한해동안 물류활동에 탁월한 발전을 이룩한 업체를 선정 '93물류대상을 시상하게 되며, '21세기 물류 혁신'이란 주제로 안태호 회장의 기조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 대회에는 국내외 물류전문

가를 초빙, 기업의 물류합리화 사례 및 개선방향을 발표, 토의하게 되며 각 기능별 그리고 종합부문 물류대상 시상업체의 사례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특별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화 대응의 물류전략」-임오규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물류표준화와 일본기업」-稻束原樹 일본 로지스틱스 시스템협회 상무이사

대 현, 중국시장 진출 예정
연말까지 1백만불 수출목표 달성

포장기계전문업체인 (주)대현코포레이션(대표 정병구)이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7일부터 중국 天津에서 개최된 식품, 포장기계전에도 수출용으로 제작된 제함기(ABF-TN)를 위주로 포장기 관련, 봉합기 비닐타이 M/C, POWER MOLLER

CONVEYOR 등을 출품하였으며, 총 전시면적은 2부스였고 하루 평균 천명 이상이 방문, 상담을 위한 회사만도 150개사나 된다고.

대현은 유럽, 일본, 미국, 동남아 등지에 수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중국시장에도 진출한 계획으로 현지 합작공장이나 판매대리점 개설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올 11월로 예정된 북경전시회를 준비중이며 충분한 정보수집 및 교류확대를 통해 94년도 본격적인 중국시장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까지 수출목표는 1백만불.

또한 내년초 경기도 이천에 대지 1천2백여평 규모의 공장건립을 착수할 예정이다.

물류 류 혁신 사례 발표회
삼성전자, 용마, 엘지, 삼양사, 럭키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상의회관 2층의 제2,3회의실에서 「앞서가는 기업의 물류 혁신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내 기업의 물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물류 혁신 사례 발표회에는 음·식품, 전기·전자, 의류, 유통 산업, 운송, 화학 등 각 분야별로 물류 선진 기업으로 꼽히는 국내 업체의 물류 책임자가 나와 사례를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삼성전자(주)의 이용우 담당, 용마유통(주)의 김인호 이사, (주)엘지유통의 이대용 이사, (주)삼양사의 이종렬 차장, (주)럭키의 배정태 과장이다.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물류 혁신 사례 발표회

